

#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부지 빨리 매입하라”

### 전남도의회·지역사회단체 성명...올 예산 44억 불용처리 반대 김영록 지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만나 센터 신속 추진 건의

질병관리청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립심뇌혈관센터 구축 사업비 44억원을 불용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도의회와 전남사회단체연합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부지 매입 등 연내 사업비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만나 전남의 14년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전남도의회는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설립을 조속히 실행하라. 질병관리청은 이미 확보한 44억 원 내에서 장성 나노산단에 부지 매입 절차를 조속히 착수하고 확실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과 함께 2021년도 예산에 국비 44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도민들은 장성 나노산단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질병청이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를 무시한 채 지난 4월,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에 따른 연구기관 확대 추진 등을 이유로 센터설립을 지연시키고 있어 사업 추진 의지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민이 꿈꾸고 준비해온 14년 동안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은 목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지연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전남도민들은 사업추진 의지에 의심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190만 전남도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했다.

전남지역 3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운영 100대 과제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엄중히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김지사는 이날 오후 질병관리청을 방문, 정은경 청장을 만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새로운 용역 결과에 맞춰 일정 규모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부연구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장성에 처음으로 시작된 추진배경도 공감하며 잘 알고 있다”며 “인력, 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중추적인 연구소로 만들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구축 사업은 국민 사망원인 2위(24.3%)로 꼽히는 심뇌혈관질환을 국가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위험성만큼이나 진료와 치료에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므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통한 국가차원의 연구 및 예방과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의료계는 지적하고 있다.

센터 설립 예정지인 장성군 나노산단은 광주연구개발특구에 자리 잡고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심뇌혈관센터연구소, 나노바이오센터, 전자통신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인접해 있는 데다,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입지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김 신품종 ‘해풍1호’ 민간 종자 배양업체 기술이전 전남해수원-3개 업체 계약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김 종자산업의 안정화와 전문화, 규모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김 양식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종자배양(유리사상체) 업체 3개소와 수산 분야 국내 첫 통상실시(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통상실시 품종은 ‘해풍1호’다. 지난 2011년 전남도가 야심차게 개발한 일명 ‘슈퍼김’으로, 자손 번식력이 뛰어나다.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2배 이상 많아 어업인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는 전남 대표 품종이다.

김은 케이푸드(K-Food) 대표 품목으로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 불린다. 지난해 6억 달러를 수출하는 등 수산물 대표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종자산업과 배양산업은 매우 영세해 김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민간기술 이전을 통한 전문화, 규모화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양식 어업인에게 보급한 도유품종 ‘해풍1호’ 민간이전을 위해 지난 10월 공고를 거쳐 신청한 전남 3개 유리사상체 업체와 24일 기술이전을 위한 통상실시 계약(유리사상체 4천500g)을 했다.

김은 케이푸드(K-Food) 대표 품목으로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 불린다. 지난해 6억 달러를 수출하는 등 수산물 대표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종자산업과 배양산업은 매우 영세해 김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민간기술 이전을 통한 전문화, 규모화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양식 어업인에게 보급한 도유품종 ‘해풍1호’ 민간이전을 위해 지난 10월 공고를 거쳐 신청한 전남 3개 유리사상체 업체와 24일 기술이전을 위한 통상실시 계약(유리사상체 4천500g)을 했다.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법정감염병 정도평가 ‘우수’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실시한 법정감염병 외부 정도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법정감염병 외부 정도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민간병원 등 감염병 검사기관의 진단검사 능력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코로나19, 에이즈(AIDS), 쯤쯤가무시증 등 국가에서 정한 1급부터 4급까지 법정감염병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가능한 법정감염병 항목은 48종으로 올해는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27개 병원체에 대한 정도평가를 수행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합격했다.

특히 올해는 2022년에 추가 확대되는 고위험바이러스성 출혈열 2종(크리미안콩고출혈열, 리프트브렐리열), 기생충 3종(장흡충, 폐흡충, 간흡충), E형간염, 모기매개 바이러스성 질환 2종(웨스트나일열, 황열) 등 8개 항목에 대한 정도평가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법정감염병을 56종으로 확대해 검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종진 감염병조사과장은 “감염병 관리는 검사능력을 갖춘 실험자의 신속·정확한 진단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법정감염병 87종 중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안된 31종의 항목에 대해서도 감염병 진단 검사능력을 최단기간 내에 확보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주한 프랑스 대사·경제인 광주시와 투자 협력 논의 이용섭시장 “車·호텔 투자”

주한 프랑스 대사와 경제인들이 광주를 방문해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 다비드 피에르 잘리롱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기업인들은 24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났다.

이 시장은 “자동차, 호텔 등 분야에 투자하면 광주시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요청했다.

필립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 기업들이 인공지능, 자동차 부품, 호텔 산업, 문화 분야 등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정책에 관심을 두고 광주 진출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비드 피에르 잘리롱 회장은 광주시,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주한 프랑스대사관, 한불상공회의소의 업무 협약을 거론했다.

이 시장은 “먼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투자와 협력을 진척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방문단은 광주 경제자유구역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에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친환경 부품인증센터 등을 찾아 현황을 살펴봤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24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 일행의 예방을 받고 프랑스기업 광주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캐스퍼 구매 취득세 전액 지원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광주형 일자리’ 결실인 ‘캐스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광주형 일자리’ 등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자에게는 취득세 등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캐스퍼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로, 경차의 경우 50

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캐스퍼 구매 시 취득세를 부담하면 사후에 지역 화폐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관련 예산안은 추경으로 본회의에 제출됐다. 앞서 시의회 산건위는 19일 심의에서 예산안 전액(40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안은 24~25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조례-예산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b>총 계</b>		<b>93</b>	<b>29</b>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